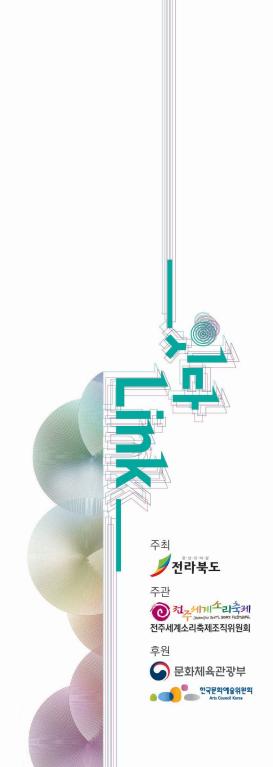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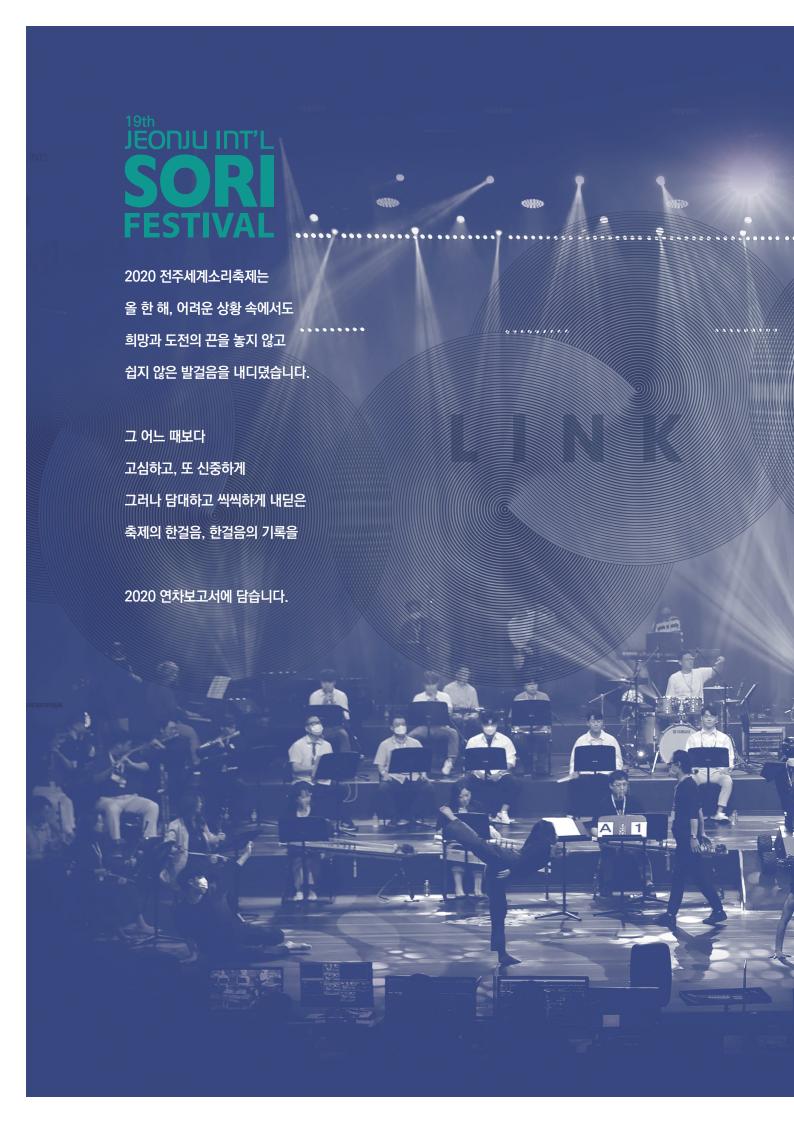


ANNUAL REPORT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차트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2년 연속]

세계 1위

세계 월드뮤직 평론가·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차트(TWMC)'선정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프로그래밍"

"성별·연령 제약 없는 예술인·스태프·관객 아우른 포용성"

"유·무료 공연의 적절한 안배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높아"

2020 전주세계 소리축제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미디어·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됐다.

주 제 _ 잇다(Link)

일 시 2020. 9. 16. - 9. 20. 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비대면 · 미디어&온라인 중계, KBS전주, 전주MBC, JTV 생중계

프로그램 5개 공연

- [공식행사] 개막공연 ' 잇다'
- [공식행사] 폐막공연 '전북청년음악열전'
- [기획공연] 현 위의 노래
- [공동기획] 전주세계소리축제 X CBS '별빛콘서트'
- [공동기획] KBS 한국인의 노래

찾아가는 소리축제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행하는 6년차 미래관객 육성 프로젝트,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인다.

일 시 2020. 10. 21. - 10. 23./10. 26. 4일간

장 소 10월 21일 11:00 남원 송동초등학교 10월 22일 13:20 익산 이리계문초등학교 10월 23일 13:30 군산 선유도초 · 중학교 외 4개교 연합 10월 26일 11:00 임실 성수초등학교

프로그램 두들팝. 브러쉬 씨어터

19X19 챌린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특별 프로젝트. 19일 동안 전주역 광장(온라인 생중계)에서 진행된 예술인들의 장기간 논스톱 버스킹이다.

일 시 2020. 11. 1. - 11. 19. 19일간

장 소 전주역 광장 /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209개팀, 900여명 아티스트 참여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아이덴티티

올해 소리축제의 주제는 '_잇다(Link)'로 현악기를 주요 소재로 했다. 현악기의 특징인 '줄' 과 '이음'을 모티브로 '연결', '연대'의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로 맞이한 언택트 시대에 현장 공연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축제와 문화예술을 통한 '연결'의 가치, '연대'의 의미를 지속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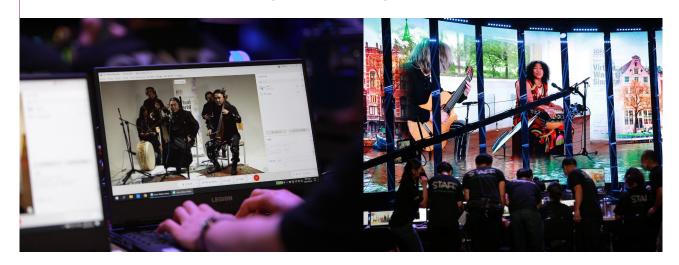


공식포스터의 서로 맞잡은 두 개의 원은 소리와 사람, 전통과 미래가 이어지는 축제의 연결, 포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원을 연결하고 있는 선은 현(현악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소리의 울림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맞잡은 두 개의 원의 이미지 확장을 통해 예술적 연결과 융합, 소리의 음률과 화합 등 축제가 창조하는 시너지 효과를 표현한다. 연차보고서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H 뉴스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코로나 19를 넘어선 뉴노멀 축제의 문을 열다 미디어·온라인 특별기획 5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식에 대한 고심을 거듭, 온라인·미디어 생중계 특별기획 5選으로 진행됐다. 축제의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됐으며, 방송사와 협력해 KBS 전주(개막공연 '_잇다'), 전주 MBC(현 위의 노래), JTV(폐막공연 '전북 청년 음악 열전')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CBS 별빛콘서트, KBS 한국인의 노래 등 풍성한 특별 기획으로 관객을 찾았다. 소리축제는 코로나19를 넘어선 뉴노멀 축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차별화된 미디어 공연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



세계 최초, 온라인 월드 시나위 전 세계 9개 지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개막공연] '_잇다'

개막공연 '_잇다'는 13개국 9개 지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한국의 특별 시나위 팀과 함께 온라인 합동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주단의 전용 포지션인 오케스트라 피트에는 공연 기술팀과 해외 커뮤니케이션팀이 올라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술이 결합된 첨단의 공연 형태를 창조했다. 무대에 세워진 대형 화면을 통해 해외 9개 지역 연주자들은 한국 시간에 맞춰 한국 연주자들의 무대 연주를 지켜보며 온라인 실시간 협연을 이어갔다. 개막공연 '_잇다'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공연예술의 새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VR카메라로 무대를 구석구석 관객의 시선+첨단의 기술 61명의 우리지역 예술가들의 도전 폐막공연 '전북청년음악열전'

폐막공연 '전북청년음악열전'은 전북 지역 61명의 청년 연주자들이 뜨겁고 촘촘하게 연결된 무대였다. 61명의 연주자들은 젊은 소리꾼 5명을 필두로 전통음악, 락, 클래식 등 장르 불문 즉흥 시나위 공연을 선보이며 정체된 열정과 패기를 폭발시켰다. 온라인 생중계는 일반적인 방식의 중계 외에도 무대 위를 누비는 360도 VR 카메라를 통해 관객이 직접 시선을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의 중계가 동시 진행됐다. 온라인 중계의 한계를 최소화해, 관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객서비스를 제공했다.

축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철저한 One-stop 방역 스루 예술인과 스태프, 모두를 보호하는 축제 지킴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방역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관중, 온라인 · 미디어 축제로 비록 현장을 찾은 관객은 없지만 출연진, 무대 및 기술팀, 사무국 스태프, 방송국 스태프, 소리천사(자원봉사자) 등 축제 참가자들을 위한 일원화된 데일리 방역 시스템을 운영했다. 체계적인 '원 스톱 방역 스루' 컨테이너를 통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물샐틈없는 방역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축제를 지키고 모두를 보호했던 방역 시스템의 운영은 올해 축제의 빛나는 성과로 남았다.

축제의 첫 도전! 온라인 공연의 큰 수확 무대를 벗어나 화면에서 이뤄진 예술인과 관객의 소통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첫 도전이었던 미디어 · 온라인 축제를 통해 큰수확을 얻었다. 우선 소리축제의 고정 팬들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관객층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중계된 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리플레이 되면서 누적 조회 수는 꾸준히 올라 2020년 12월 기준 개막공연 '_잇다'의 경우 약 1만 뷰, '현 위의 노래' 역시 약 1만 뷰를 달성했다. (공식 SNS와 방송사 온라인 채널 합산) 특별 기획 5選 전체 공연 합산 결과 약 4만 뷰를 훌쩍 넘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실시간 채팅방' 및 '댓글' 등을 통한 관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Best Festival Awara: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9 Festival Awards Top 10:

- 1. Jeonju Int'l Sori Festival (KR)
- 2. Ethno Port Poznań (PL)
- 3. [tie] Estival Cuenca (ES) + Festival des 5 Continents (CH)
- 5. BU Global Music Festival (US)
- 6. Globaltica (PL)
- 7. Fira Mediterrània de Manresa (ES)
- 8. Rainforest World Music Festival (MY)
- 9. Sukiyaki Meets the World (JP)
- 10. Etnosur (ES)

6

월드뮤직전문가, 평론가 TWMC 선정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2년 연속] 세계 1위 쾌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통음악축제로서 세계적 위상과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받는 쾌거를 올렸다. 월드뮤직 평론가와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트랜스글로벌월드 뮤직차트'는 '제2회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결과 2018-2019년 '전주세계소리축제'를 1위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 ▶ 심도있는 음악적 다양성 ▶ 신진예술가육성에 대한 기회 부여 ▶ 커뮤니케이션 ▶ 축제 참여자의 경험 고양 ▶ 편리한 관객동선 및 행사장 배치 ▶ 환경에 대한 책임감 ▶ 사회적 책임 등을 꼽았다. 소리축제는 이 같은 다양한 기준에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며 탁월한 성과와 배려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축제와 예술인들의 담대한 도전 <19X19챌린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전주역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19X19 챌린지를 진행했다. 19X19 챌린지는 소리축제 19회의 분기점에서 맞은 19일 릴레이 공연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연의 본질,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한 고민을 담아 탄생한 대형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위축되고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가 축소된 가운데 예술가들의 예술적 행위와 존재 의미, 역할은 계속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시작됐다. 공연분야 외 미술, 문학까지 다양한 장르의 209개 예술 단체, 약 9백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약 140시간, 8천 여분의 공연 시간을 잇는 담대한 도전을 이어갔다.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작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소리축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소리축제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협력해 진행하는 6년 차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다. 전북 도내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해 문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지친 학교 현장(남원, 익산, 군산, 임실)을 찾아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소리축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의 문화 향유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아동청소년 극단 브러시 시어터의 '두들팝' 공연을 통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경험을 제공했다.

특별한 온택트(On-tact)! 코로나19와 함께 바뀐 축제의 풍경들 소리천사화상회의 발대식 : 온라인 어린이 그림 공모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새로운 미디어·온라인 축제에 발맞춘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소리천사 발대식은 300여 명이 모여 선서와 사진촬영, 교육 및 장기자랑 등으로 화려한 출정식을 올렸던 예년과는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 조직위 사무국과 50여 명의 소리천사들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안전한 축제, 성공적 축제를 다짐했다. 더불어 어린이 그림 공모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존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됐던 어린이 그림 공모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0

2020-2021,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국제교류의 새로운 대안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더 콜라주(The Collage)' 진행 중

2020년과 2021년을 잇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 2020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체르토의 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의 전통예술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만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는 국제교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5개월 장기 프로 젝트로 현재 레퍼토리 및 협연자 선정, 한국의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한 협연곡 4곡 제작(편곡)까지 마친 상태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영상과 한국 측 연주자들의 실연을 결합한 편집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최종 프로젝트의 완성 및 결과물은 2021년 2월에 공개된다.

코로나19 시대, 전주세계소리축제 **축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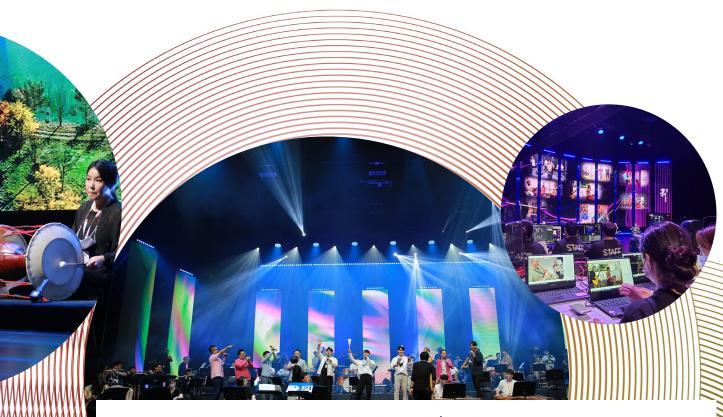
'관객과 아티스트, 스태프들의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축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과 도움'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온라인 5選으로 진행되는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두가지 답변이 최고점을 받았다. 뒤이어 '코로나19 이후의 공연계와 음악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기회', '취소나 연기 없이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답변과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많은 관객들이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대'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출처 :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20. 10.





코로나19 시대,전주세계소리축제 **축제 만족도**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평가 결과

축제 만족도 평점이 4.4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매우 만족 53.5%를 포함하여 만족했다고 답한 참가자가 93.1%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 때문에 줄줄이 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축제를 무사히 마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조사대상표본이 축제를 직접 준비하는 주체(예술인, 스태프)이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 만족도 평가

평가척도 분포(%)

• 매우 만족(5점)

• 만족(4점)

• 보통(3점)

• 배우 불만족(2점)

• 매우 불만족(1점)

출처: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20. 10.







새로운 공연의 개막! 전주세계소리축제 화이팅! 올해는 방구석 1열에서 즐기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줄 위에 앉아 계셔도 그림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깊어가는 가을밤에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좋은 공연을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니. . .



온라인으로 귀호강, 눈호강했습니다! 아리랑 연주 때는 온 몸에 소름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나아지도록 촛불하나에 함께 마음을 담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즐거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해준 소리축제 고맙습니다!

SORI
FESTIVAL

The 19th JEONJU INT'L SORI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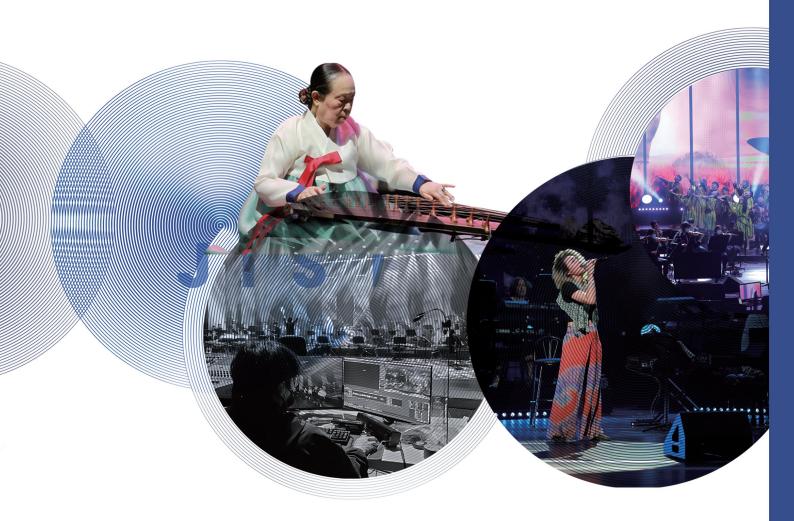
VIEW 언론이 본 전주세계소리축제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는 비대면에 순응하기보단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뚝심 때문에 준비한 언택트 시나위.

소리축제의 이번 시도가 코로나19 시대를 견뎌 나가는 공연계에 어떤 좌표를 던져줄 지 관심이 쏠린다.

- YTN뉴스 2020. 9. 16.



무대 위 전통악기를 든 국악인들의 구성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곧이어 세계 각국의 악기 연주가 이어진다. 러시아와 대만, 독일 등 13개 나라 9개 팀의 현지 공연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온라인 합주를 이뤄냈다. 기술 적으로 빚어지는 한계는 음악적 편곡 으로 채웠다. 코로나19로 설 무대가 없어진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기회다. 코로나19 혹독한 시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소리축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리축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의미를 더해 힘든 여정을 스스로 선택 했다.

- 전북중앙신문 2020. 9. 16.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속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러졌다.

객석에 관객을 들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디지털 기술 축제'라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 자체만으로 의미있었다.

- 연합뉴스 2020. 9. 20.

VIEW 국내·외 전문가가 본 전주세계소리축제

최병미

주일한국문화원 기획조정부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기자

송현민

음악평론가 / 월간객석 편집장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행사의 온라인 개최는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with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 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20여년 오프라인 개최 실적과 더불어 이번에 얻은 축제의 디지털 운영능력은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소리축제로서 자리 매김해 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객석은 텅 비었지만, 진정한 시나위가 우리에게 왔다. 이제 이들의 소중한 첫 경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소리축제의 다음 과제가되었다. 우리시대가 원하는 축제의 풍경은 따로 있었던 것 아닐까? 물리적 객석은 텅 비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으로 꽉 채워진 진정한시나위가 우리에게 왔다. 남다른 음악 구성력과 미디어를 통한 대중적 접근력을 보여준시간이었다. - 무대 위의 음악가들을 잘 잇고, 음악의 장르를잘 잇고, 무대와 관객들을 잘이은 것이다. 국악이 지금까지꿈꿔온 '이음의 목마름'을 적셔준 공연이었다. -우리가잊고 있던 전통음악의 즉흥성과현장의 기술력이 접목된, 이시대 '청년테크놀로지'를 다시한 번느끼고 싶다.

전주의 가을 하늘 아래서 마주 했을 공연을 컴퓨터 모니터와 스피커로 만날 때, 야외에서 즐겼던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그리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축제를 이어가기 위해 애쓴 스태프들 덕분에 공연은 녹화공연을 편집해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영상은 현장에 있는 듯 가까웠고, 사운드는 생생했다.



찰리 크루이즈만

Charlie Crooijmans

네덜란드 월드뮤직 전문기자

나무랄 데 없는 뛰어난 음향과 영상, 실시간으로 진행된 다국적 협연 등 축제가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할 바 없이, 소리 축제는 미래 축제의 본보기가 될 거라 확신했다.

쏘냐 마줌다르

Sonya Mazumdar

'어쓰씽크 인디아' 창립 대표

샤샤 간킨

Sasha Gankin

BBC월드, BBC 아프리카

엔젤 로메로 Angel Romero

TWMC 창립자

각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디지털 시간차라는 엄청난 도전적 과제 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과 연출팀의 엄청난 노력, 음악의 마술적인 힘, 그리고 헌신적인 협연을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 였다.

한국의 높은 미학적 감수성과 연출의 높은 기준이 우수하게 디자인된 연출이 있기에 가능 했다.

강력한 예술적 해답, 젊은 예인 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관객의 한 사람 으로서, 우리는 2021년에도 그것을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감히 희망컨대, 다음에는 한국 소리문화의전당의 꽉 찬 강당 에서 다시 한 번 이 무대를 보고 싶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세계 음악인들과 공연 현장에 영향을 미쳤고, 소리축제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시간 '월드 시나위'를 위해,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곳곳을 잇기 위한 각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총동원 됐다.



연차보고서



지친 학교 현장을 찾아 즐거움과 위로 전하고 왔어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해 미래관객 육성 프로젝트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6년차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찾아가는 소리축제의 규모를 축소,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교 현장을 찾아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프로그램으로는 낙서와 스크린 아트가 결합된 매직드로잉 가족극, 글로벌 아동청소년 극단 브러쉬 씨어터의 연극 '두들팝'을 선보였다.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채로운 예술경험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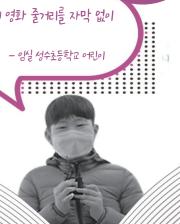


10월 23일 군산 선유도초·중학교 _...__ ` 외 4개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밖을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리축제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 군산 선유도초 · 중학교 선생님





- 임실 성수초등학교 어린이

19일간 전주역 광장에서 진행된 예술인들의 논스톱 대장정

코로나19 극복 특별 프로젝트 19X19 챌린지

후원_ **K음RAIL**

유례없는 도전과 실험 통해 예술인들의 저력과 믿음, 스스로 확인한 시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많은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연의 본질, 지속가능한 예술에 대한 고민을 담은 특별 프로젝트 19X19 챌린지를 진행했다.

19X19 챌린지는 소리축제가 19회의 분기점에서 맞이한 19일의 릴레이 공연으로 전주역 광장 (유튜브 중계)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매일 11개팀이 각각 40분의 공연을 이어갔다. 총 209개 팀, 9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으며 140시간, 8천여분의 시간이라는 유례없는 도전과 실험이 19일간 계속됐다.

코로나 19로 문화예술계가 위축되고, 예술인들의 공연 기회가 축소된 가운데 예술가들의 예술적행위와 존재 의미, 역할은 계속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예술인들과 관객, 스태프는 코로나19시대에도 건재한 예술인들의 저력과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며 희망릴레이를 이어갔다.







2001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적 음악 전통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는 창조적 축제"

주 제 소리사랑 온누리에

일 시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위원장 천이두

총 감독 강준혁

공 연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2002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예술축제+산업형축제)"

주 제 목소리(Voice)

일 시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상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현 전주한옥마을)

위원장 천이두

총감독 임진택

공 연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2003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주 제 소리, 길, 만남

일 시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위원장 천이두

총감독 임진택

2004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 제 소리! 경계를 넘다

일 시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위원장 안숙선

총감독 곽병창

공 연 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2005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주 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일 시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위원장 안숙선

총감독 곽병창

공 연 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2006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주 제 소리, 놀이

일 시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위 원 장 안숙선

총감독 곽병창

공 연 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2007 주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주 제 소리, 몸짓

일 시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내 일원

위원장 안숙선

총 감 독 곽병창

공 연 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2008

주 제 소리, 오락

일 시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내 일원

위원장 안숙선

총감독 안영수

공 연 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프로그램 70개 프로그램, 225개 공연 및 행사

공 연 팀 14개국 172개팀 5,000여명

2010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주 제 창조, 열정, 놀이

일 시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위원장 김명곤

총감독 김정수

공 연 팀 9개국 3000여명

프로그램 44개 프로그램, 213개 공연 및 행사

2011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주 제 이리오너라 UP GO 놀자!

일 시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공연팀 9개국 1,161명

프로그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2012

"국악대중화를 통한 소리축제의 위상 강화"

주 제 소리 한 상 가득

일 시 9월 13일 - 9월 17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공 연 팀 18개국 1,529명

프로그램 41개 프로그램 252회 공연

2013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주 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공연팀 37개국 2,834명

프로그램 51개 프로그램 295회 공연

2014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주 제 대마디 대장단

일 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29개국 1,300여명

프로그램 52개 프로그램 203회 공연

2015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주 제 소리 Big Party

일 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 연팀 28개국 1,300여명

프로그램 49개 173회 공연

2016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험,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주 제 세상의 모든 소리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1,300여명

프로그램 60개 160여회 공연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2020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주 제 _잇다(Link)

일 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장 소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 연 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898명(19X19챌린지)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

2019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 예술 소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주 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20개국 1,082명

프로그램 132개 프로그램

2018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

주 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일 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조직위원장 김한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연팀 18개국 1,116명

프로그램 154회

2017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주 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일 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대

조직위원장 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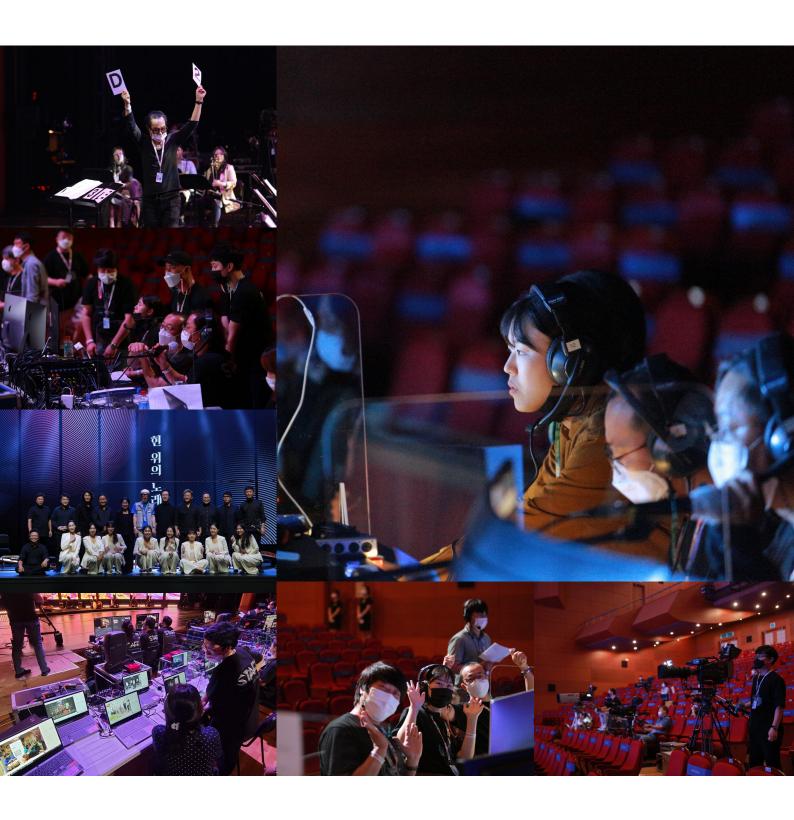
집행위원장 박재천

공 연팀 33개국 1,100여명

프로그램 43개 165여회 공연

연차보고서

S T A F F



S O R I A N G E L



2020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 임원 |

명예조직위원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조직위원장 | 김 한

집행위원장 | 박재천

부위원장 | 심인택 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부위원장 | 최동현 군산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상임위원 |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상임위원 | **지성호** 작곡가

| 외부감사 |

오용규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외부감사)

| 조직위원 |

김국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부 차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변주승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CEO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유춘택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회장

이기선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부교수

이영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내부감사)

정진욱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라북도문화예술과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관 문화예술과장

주영환 예술지원팀장

이연심 주무관

|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무대팀

부장 **한지영**

| 기획팀 |

팀장 **조성원**, 차장 **이윤주**, 팀원 **장은옥** 인턴 **김소리**, **양지혜**

l 무대팀 l

팀장 **최형범**

| 대외협력부 | 홍보팀.행사팀

부장 **김회경**

|홍보팀|

팀장 이조은, 팀원 이지환

| 행사팀 |

팀장 김경훈, 팀원 구국회

| 행사팀 사이트매니저 |

전선호, 채동석, 유지훈, 이동훈 김종호, 박준규, 박래렬, 유상현

| 행정실 |

실장 **김동희**

| 행정팀 |

팀장 조현철, 팀원 최다미, 이미란

| 소리천사 |

강정민, 강 훈, 김바다, 김영곤, 김윤경, 김정현, 김준성, 김지수, 김찬우, 김태령, 김하영, 문현호, 박근호, 박서희, 박효열, 서문주현, 서민지, 서정연, 서준하, 선나은, 송지현, 신태규, 안우현, 안지윤, 안혜란, 오기정, 오윤수, 윤대영, 윤민주, 윤주희, 이수현, 이에녹, 이예린, 이정관, 이찬진, 전지훈, 정다영, 정지윤, 제혜림, 조영인, 조예린, 조은진, 최현지, 최홍준, 한채호, 허은애



전주세계소리축제 제작진

연출 박재천

음악감독(편곡 및 음악지도) 미연

악보 및 음원제작 이정환

스코어리더 임지혜

기술감독 박기남

무대감독 강인천, 김응완

무대조감독 황규헌

무대진행 조보현, 노경한, 김성빈, 이정연, 노윤태

| 음향팀 |

음향하우스감독 최동복, 송성현

방송콘솔 **송인환**

음향모니터감독 양경혜, 홍지은

음향스테이지스태프

김승식, 김민환, 서병철, 안혜민, 강주연

| 조명팀 |

조명디자인 임재덕

조명오퍼레이터 안미란

조명스태프 이상진, 김현아

조명기술팀 **박상호, 신승열, 이형진**

| 영상제작팀 |

우기하, 허인철, 최석주, 모용우, 박소라, 조민수 장수호, 한지원, 정은선

| 영상기술팀 |

최미경

| 영상중계팀 |

심윤보, 김경복, 이상구, 장세채, 이춘호, 황성필 장지혁, 유태호

| VR360중계팀 |

원상연, 안수진, 김인겸

| 무대제작 |

무대디자인 김대한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김태환, 계은영

| 하드웨어 |

LED전광판 공간미디어 **이성희, 최호원** 레이허 메카트로닉스 박상현, 김인중, 정용현

| 통역 |

이승하

2020 세계 소리





2 0 2 0 전 주 세 계 소 리 축 제

2020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549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Tel. 063·232·8398 Fax. 063·232·8399 Homepage www.sorifestival.com

VouTube sorifestival

Gustagram sori_festival

f facebook sorifestival